

SBS_1분기 프라임타임 2049 시청률 1위! 드라마-교양-예능 경쟁력 최고



SBS가 1분기 프라임타임 2049 시청률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여전히 막강한 채널 파워를 과시했다. 닐슨코리아의 채널별 프라임타임 2049 시청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SBS는 1분기 평균 2.78%(수도권 기준)로 1위를 지켰다. SBS는 2018년에도 보도-교양-드라마-예능-스포츠 모든 장르에서 골고루 선전하며 전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SBS에 이어 2위는 KBS2(2.26%), 3위는 MBC(1.65%), 4위 tvN(1.62%), 5위 JTBC(1.60%) 순이다. 1분기 2049 프로그램 TOP 20을 보면, SBS는 <미운 우리 새끼>(9.08%), 금토드라마 <열혈사제>(6.91%), 드라마스페셜 <황후의 품격>(5.83%), <집사부일체>(4.20%), <정글의 법칙>(4.13%), <백종원의 골목식당>(4.12%) 등 6개 프로그램을 20위안에 포진시켰다. tvN은 5개, KBS2는 4개, JTBC는 3개, MBC는 2개 프로그램이 20위안에 들었다. SBS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드라마 <황후의 품격>, <열혈사제>, 예능 <미운 우리 새끼>, <백종원의 골목식당>, <집사부일체>, <정글의 법칙>, <런닝맨>, 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SBS스페셜> 등이 꾸준히 화제를 모으며 2049시청자들을 끌어당긴 데 있다. 2분기가 시작된 4월 SBS의 기세는 더 무섭다. SBS는 2049 시청률 1, 2위를 차지한 <열혈사제>와 <미운 우리 새끼>를 비롯하여 <정글의 법칙>, <불타는 청춘>, <집사부일체>, <그것이 알고 싶다>, <런닝맨>, <녹두꽃- 사람, 하늘이 되다>, <궁금한 이야기 Y>, <백종원의 골목식당>, <TV 동물농장> 등 무려 11개 프로그램을 2049 TOP 20 안에 올려놓는 기염을 토했다. 당연한 결과로 SBS는 채널별 프라임타임 2049 시청률에서 2.59%의 시청률로 1위를 지켰다. SBS를 제외한 타 채널들이 1%대의 2049시청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SBS만 유일하게 2% 중반을 훌쩍 뛰어넘은 의미 있는 성과다. 편성실의 한 관계자는 “<열혈사제>의 뒤를 이은 <녹두꽃> 역시 영상, 연출, 음악 3박자가 잘 어우러지며 시작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분기에도 SBS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1~4월 프라임타임 2049시청률

순위	1월	2월	3월	1분기 평균	4월
1	SBS(2.72)	SBS(2.68)	SBS(2.93)	SBS(2.78)	SBS(2.59)
2	KBS2(2.14)	KBS2(2.27)	KBS2(2.35)	KBS2(2.26)	KBS2(1.87)
3	JTBC(2.04)	MBC(1.75)	MBC(1.65)	MBC(1.65)	MBC(1.56)
4	tvN(1.83)	tvN(1.60)	tvN(1.43)	tvN(1.62)	tvN(1.18)
5	MBC(1.56)	JTBC(1.42)	JTBC(1.34)	JTBC(1.60)	JTBC(1.13)

1분기 2049 프로그램 TOP 20

순위	프로그램	채널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	채널	시청률
1	SKY캐슬	JTBC	11.25	11	해피선데이	KBS2	4.49
2	하나뿐인내편	KBS2	10.26	12	집사부일체	SBS	4.20
3	미운우리새끼	SBS	9.08	13	닥터프리즈너	KBS2	4.20
4	알함브라궁전의추억	tvN	7.77	14	정글의법칙	SBS	4.13
5	나혼자산다	MBC	7.48	15	남자친구	tvN	4.12
6	열혈사제	SBS	6.91	16	백종원의골목식당	SBS	4.12
7	황후의 품격	SBS	5.83	17	아는형님	JTBC	4.11
8	전자적참견시점	MBC	5.41	18	눈이부시게	JTBC	4.05
9	세상에서제일예쁜내딸	KBS2	5.10	19	왕이된남자	tvN	3.64
10	스페인하숙	tvN	4.70	20	Since2019커피프렌즈	tvN	3.57

4월 2049 프로그램 TOP 20

순위	프로그램	채널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	채널	시청률
1	열혈사제	SBS	9.32	11	집사부일체	SBS	3.52
2	미운우리새끼	SBS	8.18	12	그것이알고싶다	SBS	3.48
3	나혼자산다	MBC	6.90	13	런닝맨	SBS	3.47
4	닥터프리즈너	KBS2	5.61	14	녹두꽃	SBS	3.35
5	세상에서제일예쁜내딸	KBS2	5.18	15	궁금한이야기Y	SBS	3.26
6	스페인하숙	tvN	4.76	16	구해줘홈즈	MBC	3.21
7	해피선데이(슈퍼맨이돌아왔다)	KBS2	4.22	17	백종원의골목식당	SBS	3.12
8	전자적참견시점	MBC	4.00	18	TV동물농장	SBS	3.06
9	정글의법칙in태즈먼	SBS	3.75	19	특별근로감독관조장풍	MBC	3.05
10	불타는청춘	SBS	3.67	20	아는형님	JTBC	2.96

여진구-방민아-홍종현 수목드라마 **절대그이** 5월 15일(수) 첫 방송

휴머노이드가 보여주는 완전×완벽한 사랑

수목드라마 <절대그이>(극본: 양혁문, 장아미, 연출: 정정화)가 5월 15일(수) 첫 방송된다.

<절대그이>는 사랑의 상처로 강철 심장이 되어버린 특수 분장사, 빨강계 달아오른 뜨거운 핑크빛 심장을 가진 연인 용 피규어, 로봇같이 살고자 애쓰는 톱스타가 펼치는 SF인 '척'하는 요망한 로맨틱 멜로다. 일본의 인기 만화가 와타세 유우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하며, 이미 일본에서는 2008년에 드라마로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진구, 방민아, 홍종현 등 그야말로 만화를 찢고 나온 듯한 비주얼의 '만찢 라인업'과 함께, 지난해부터 촬영을 진행하여 100% 사전 제작된 드라마라는 점에서 완성도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여진구는 외로운 여자 주인공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이자 사랑에 빠진 휴머노이드 제로나인 역을 맡아 특유의 깊은 눈빛으로 다시 한 번 여심을 저격한다.

방민아는 천하무적 순도 100% 아날로그 감성의 특수 분장사 다다 역을 맡아, <공심이> 이후 다시 한 번 인생 캐릭터에 도전한다.

요즘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홍종현은 알고 보면 여린 까칠한 톱스타 마왕준 역을 맡아 열연한다.

제로나인의 원래 주문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재벌그룹 DIA의 유일한 상속녀 다이애나 역은 홍서영이 맡아 까칠하고 소유욕 강한 차가운 카리스마를 연기한다.

엄다다(방민아)는 마왕준(홍종현)과 7년을 사귀 특수 분장사이다. 하지만 마왕준의 바쁜 일정과 철저한 사생활 관리



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여 결국 이별하게 된다.

그 이후 사랑을 믿지 않게 된 엄다다는 우연히 사람과 똑같이 생긴 더미를 발견하고 만져보려다 인형을 작동시키고 만다. 연인용 피규어로 제작된 제로나인(여진구)은 엄다다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인식하여 애정 공세를 퍼붓고, 처음에는 경계하던 엄다다도 제로나인의 완벽한 사랑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SF와 로맨틱 멜로, 코미디와 스릴러를 절묘하게 버무린 독특한 로맨스 <절대그이>는 짜릿하고, 궁금하고, 행복한 이야기로 5월 15일(수)부터 매주 수, 목 밤 10시에 시청자를 찾아간다.

SBS 월화드라마

봄의 절정에 어울리는 상큼한 로코 초면에 사랑합니다

김영광-진기주 푹푹한 케미로 순도 높은 로코 예고



김영광, 진기주가 무리익은 봄날에 어울리는 상큼발랄한 로코의 탄생을 알렸다.

5월 6일(월)부터 시작된 32부작 월화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극본: 김아정, 연출: 이광영)는 김영광, 진기주 두 사람의 찰떡 케미와 스피디한 전개, 섬세한 연출로 월, 화 밤을 기다리게 하는 드라마로 떠올랐다.

재수 없기로 유명한 T&T모바일 미디어 본부장 도민익(김영광 분)은 자신의 비서 정갈희(진기주 분)를 노예처럼 부린다.

정갈희는 집안의 가훈이자 엄마의 유언인 “참을 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를 가슴에 새기고 재계약을 위해 ‘정갈희’가 아니라 ‘따까리’로 불리는 것도 개의치 않는

다. 하지만 신임했던 첫 비서에게 배신당한 기억이 있는 도민익은 비서는 1년 이상 채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벚꽃이 아름답게 흩날리는 회사 체육대회 날 정갈희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다.

그러던 중, 괴한의 습격을 받은 도민익은 안면인식장애가 생기고, 유일하게 알아보는 사람은 늘 똑같은 옷차림과 머리를 하고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비서 정갈희밖에 없다.

회사 후계자 자리를 놓고 외삼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도민익은 자신의 안면실인증을 숨기려고 평소 무시하고 부려먹던 정갈희의 눈과 머리를 빌려 생활하게 된다.

정갈희를 맞선녀 베로니카 박(김재경 분)으로 오인하게 되는 도민익과 정갈희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도민익의 절친 기대주(구자성 분)와 그의 비서 을왕리(장소연 분)의 미스터리한 관계, 회사를 두고 야욕을 불태우는 도민익의 외삼촌 심해용(김민상 분)과 도민익의 엄마 심해라(정애리 분)의 관계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갑을 관계가 빠르게 역전된 남녀 주인공의 모습이 보는 재미를 주는 <초면에 사랑합니다>는 매주 월, 화 밤 10시에 방송된다.



SDF 2019 주제는 '변화의 시작-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SDF 화두 확산 위한 온라인 채널 '개인이 바꾸는 세상 D(세상D)' 론칭

SBS 임직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퀴즈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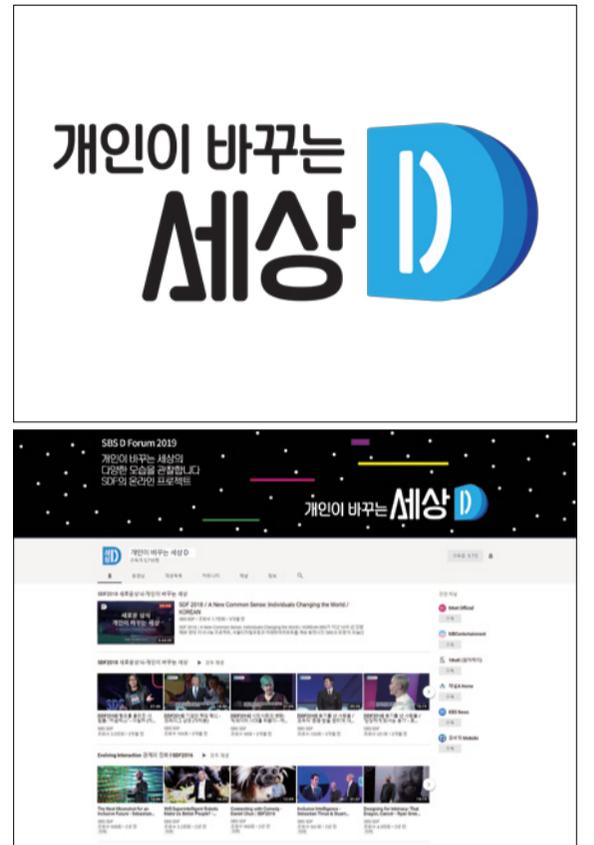
SBS가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글로벌 콘퍼런스의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 힌트를 주자면, 영어 약자로는 SDF다. 혹시 '서울디지털포럼'을 떠올렸다면 지난해 열린 SDF를 눈여겨보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부터 SDF가 '서울디지털포럼'에서 'SBS D포럼'으로 계승, 발전했다. 이름뿐 아니라 정체성도 조금 바뀌어서 기술의 변화에 주목하던 '미래형 포럼'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슈형 포럼'으로 새로 태어났다. 미래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지만 당장 우리에게 더 시급한 현안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SDF의 주제가 "새로운 상식-개인이 바꾸는 세상"으로 '미투 운동'과 '갑질 폭로' 등의 현상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그 현상을 '개인 권력의 부상'으로 해석해 낸 것도 그 때문이다.

올해 SBS D포럼은 눈 감고, 귀 닫고, 편 가르는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올해 SDF 2019의 주제는 '변화의 시작: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이다. 개인들은 더욱 다원화되고 있는 시대에, 여전히 조직과 진영의 논리로 과거보다도 더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며 영역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사회갈등 현상에 주목한다. 본질은 두고 물어뜯기

만 앞서며,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도 없이고 있는 현상은 한국만의 일도, 정치권만의 일도 아니다. SDF팀은 특히 기술 발전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내가 본 콘텐츠와 비슷한 것만 자동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등이 확증편향을 가속화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개인의 시간과 생각을 휩쓸고, 사회를 더 파편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물음표를 던진다. 또 연중 SDF 화두를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 '개인이 바꾸는 세상D'(약칭 '세상D')도 론칭했다. 채널의 이름을 지난해 D포럼의 주제 '개인이 바꾸는 세상'에서 따온 것은 변화하는 시대, '기술'이나 '사회'의 관점이 아닌, '사람', '개인'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SBS D포럼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다. '세상D' 채널은 SDF의 화두를 확산할 '지식채널'로서, 세상에 새로운 시선을 던지는 개인들의 인터뷰, 어려운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애니메이션, 솔루션을 찾기 위한 참여형 실험 등 다양한 시도를 한다.

SDF팀 관계자는 "시청자-언론사-학계 3자가 손잡고 함께 대안을 찾아 나서는 공론장 역할로서의 SBS D포럼, 그리고 5월부터 주 1회씩 게재하는 SDF의 온라인 콘텐츠 '개인이 바꾸는 세상D'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정글 & 아일랜드> 5월 11일(토) 첫 방송 잃어버린 원시 밀림에서 펼쳐지는 사생결단 생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정글 & 아일랜드>(연출: 조용재)가 5월 11일(토) 밤 9시에 첫 방송된다. 42번째가 되는 이번 도전의 무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태초의 원시림을 품고 있는 태국. 이곳에서 병만족은 <로스트 정글>, <로스트 아일랜드> 두 개의 테마로 생존에 나선다.

생존력 만렙! 정글에 출사표 낸 강한 남자 들. 정찬성&이승윤

이번 병만족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멤버들이 출격한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과 '자연인' 이승윤이 그 주인공. 대한민국 최고 UFC 파이터 정찬성은 특유의 '맷집 플레이'를 살린 끈질긴 '좀비 생존'을 했다. 반면 이승윤은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정글 환경에 초반부터 당황스러워해 과연 그가 어떻게 '자연인'에서 '정글인'으로 탈바꿈할지 기대가 된다.

이외에도 예능 출연이 좀처럼 없는 신스틸러 박호산과 김뢰하, '역대급 아이돌 라인업' AB6IX 박우진, iKON B.I, 레드벨벳 예리, 구구단 강미나 '훈남훈녀' 배우 엄현경과 현우, 라이징스타 송원석, 정글 유경험자 박정철과 허경환이 특급 생존 케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역대급 스케일의 초대형 뗏목 생존 전반기 <로스트 정글>

전반기 <로스트 정글>의 생존미션은 '맹그로브 밀림을 탈출하라'.



맹그로브로 빼곡한 긴 강을 따라 생존은 물론 탈출까지 완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병만족장이 생각해낸 방법은 다름 아닌 '초대형 뗏목'이다. 지금까지 단발적인 이동수단으로 뗏목이 정글에 등장한 적은 있지만 생존 자체를 뗏목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압도적인 스케일은 물론, 생존하는 동안 뗏목이 훌륭한 집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수많은 전설을 남겨온 병만족장이 이번에는 어떤 생존법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사건사고 속출! 섬에 고립된 병만족, 후반전 <로스트 아일랜드>

후반전 <로스트 아일랜드>는 아시아의 진주라 불리는 태국의 바다 생존이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기대했건만 섬 한가운데서 고립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촬영 당시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설상가상으로 원숭이, 물범 등 무시무시한 야생동물의 습격까지 받게 됐다. 식량조달은 물론 생존지 이동조차 어려운 난관을 병만족이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아 정글의 심장부 태국 원시밀림에서 펼쳐지는 사생결단 생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정글 & 아일랜드>는 오는 11일(토) 밤 9시에 첫 방송된다.

먹방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 '요리+추리' 신개념 요리쇼 5월 18일(토), 25일(토) 방송

오는 5월 18일(토) 2부작 파일럿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 (연출: 이관원)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은 백종원 사단이 <백종원의 3대 천왕>, <백종원의 푸드트럭>,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얼굴, 목소리, 직업을 숨긴 출연자들이 오로지 음식의 맛으로만 대결하는 새로운 콘셉트의 요리 쇼이다.

<미스터리 키친> 안에서는 유명한 셰프부터 연예계의 숨은 요리 고수, 의외의 손맛을 가진 유명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출연자가 완전히 베일에 싸인 채 공평한 조건으로 요리 실력을 겨루게 된다. 또한 食 탐정 백종원과 인간 백과사전 김희철은 그림자 셰프들의 직업, 나이 등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오직 요리하는 손과 힌트 영상을 통해 셰프의 정체체를 추리한다.

진행 방식만큼이나 독특한 세트장도 이목을 끈다. 그림자 셰프의 정체체를 숨기기 위해 사방이 꽉 막힌 두 개의 미스터리 키친을 특별히 제작했다. 대결에서 패배한 그림자 셰프는 키친 정면이 투명해지며 정체체가 공개될 예정으로, 기존 쿡방과는 차별화된 세트 활용법 또한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MC 백종원과 김성주가 직접 그림자 셰프가 되어 대결에 나서기도 했다. 정체체를 감춘 두 사람의 요리 대결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결과에 현장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MC 블라인드 대결의 승자는 누구였을까?

한편 그림자 셰프들의 완성된 요리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스터리 미식단이 맛을 본 후 평가를 남겼다. 본

대결에서 미식단은 상상을 뛰어넘는 요리 실력과 맛의 향연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가 하면, 자꾸만 빛나가는 추리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매 라운드에 올라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그림자 셰프들의 정체체는 5월 18일(토)과 25일(토) 오후 6시 40분에 방송되는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런닝맨> 어린이날 홍보대사 위촉

청와대 영빈관 및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각종 행사 진행

<애니메이션 런닝맨>이 5월 5일(일) 어린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19년 제15회 어린이 주간 및 제97회 어린이날 행사'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이날 홍보대사로 선정된 <애니메이션 런닝맨>은 서울 시청 앞 광장을 방문한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미니 게임과 경품 증정, 캐릭터 퍼레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뜻깊은 추억을 선물했다. 또 <애니메이션 런닝맨>을 어린이 뮤지컬로 옮긴 <런닝맨: 마지막 승자>의 하이라이트 공연도 2차례 선보이며 이날 서울시청 광장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한편 <애니메이션 런닝맨> 캐릭터들은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어린이 초청행사에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초대된 어린이 200여 명과 함께 <애니메이션 런닝맨> 뮤지컬을 관람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SBS-KY엔터테인먼트-삼성전자, VR 콘텐츠 사업 위해 손잡았다



SBS와 KY엔터테인먼트, 삼성전자가 VR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3사는 5월 7일(화) 목동 SBS방송센터에서 협약식을 갖고, 음원사-방송사-제조사 간 VR 콘텐츠 사업체제를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및 3사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SBS 정승민 전략기획실장은 "최근 CES와 같은 큰 행사에도 VR이 자주 보이고, 국내에도 VR 존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MOU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통되던 VR 콘텐츠와 장비에 플랫폼이 마련되었다. VR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KY엔터테인먼트 김진갑 대표는 "KY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음원 콘텐츠와 SBS의 VR 콘텐츠, 그리고 삼성의 최적화된 디바이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KPOP VRZON이 VR 산업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삼성전자 이현식 전무는 "5G 기술 선점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런 경쟁 속에 3사가 함께한다는 것은 무척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다. KPOP VRZON 사업의 성공

을 위해 조직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KPOP VRZON은 단순한 VR 노래방이 아니다. 지난 1년여의 시범 운용을 통해 사용자가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로 제작된 KPOP VRZON은 향후 기획 방향에 따라 게임이나 힐링 콘텐츠 등이 가미되어 KPOP VRZON 내 별도의 공간에서 사용자들의 방문을 기다릴 예정이다.

KY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KPOP VRZON을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시범 사업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KPOP VRZON에 대한 강한 니즈를 확인했다"고 밝혀 국내 매장 확대와 해외 진출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KY엔터테인먼트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5만여 곡 외에 외국 음원들도 엄선하여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서울랜드, 롯데월드, 서울역, 신촌 메기박스 등에서 두 달 동안 진행된 시범사업에 참여한 5천여 명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재미있고 몰입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는 연예인 관련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현재 <SBS 인기가요>와 <슈퍼콘서트>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셀럽을 적극 활용, 사용자가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VR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있다.

미디어사업팀 관계자는 "최근 VR 콘텐츠 제작이 유행이다. 특히 셀럽들의 VR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출연을 자원하고 있을 정도"라며 제작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